

매년 치솟는 전자자원 구독료에 대안 찾는 대학도서관

연평균 약 5% 인상되는 구독료
출판사에 유리해지는 구독 조건
컨소시엄 등 다양한 대처방식 활용

2000년대 초부터 전자자원(전자저널, 전자책, Web DB 등의 전자자료)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인쇄저널 출판을 중단하는 출판사가 많아지면서, 대학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중 전자자원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다. 2021년 본교 도서관(관장=석영중 교수) 전체 예산에서 자료 구입비의 비율은 약 93%이며, 자료 구입비 중 전자자원 예산은 약 72%를 차지한다. 전자자원 구독료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거대해진 전자자원 구독료는 대학도서관의 큰 걱정거리가 됐다.

본교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2018년 소폭 상승 이후 2019년부터 동결이지만, 전자자원 구독료는 연평균 5%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어 기존 전자자원 구독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국종건 학술정보기획부 과장은 “본교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본교 총예산의 1.164%로, 국내 대학 중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자원 구독료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거대 학술 출판사는 소규모 학술 출판사를 인수·합병해 제공하는 콘텐츠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때 인수·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대학도서관 등 구독기관에게 ‘서비스 규모 확대’ 명목으로 구독료를 인상해 해결한다. 석영중 도서관장은 “그동안 전자저널이 주는 이점을 잘 누리었는데, 구독료가 늘어나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8년 ‘ScienceDirect’ 전자저널 패키지 보이콧 사태는 대학도서관이 전자저널 구독료 인상으로 겪는 부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가장 큰 규모의 전자저널 패키지

인 ‘ScienceDirect’가 구독료 5% 인상을 요구하자, 국내 다수 대학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패키지 계약 대신 필요한 저널만 개별로 열람하겠다는 의사를 출판사 측에 전했다.

결론적으로 보이콧은 실패했다. 1000여 종을 전부 패키지로 구독하는 가격과 실제로 필요한 100여 종을 개별 구독하는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패키지 모델을 계약했다. ScienceDirect 저널이 학계에서 갖는 독보적 지위도 보이콧 실패에 한 몫을 했다. ScienceDirect 저널은 교수자들이 자연과학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저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구독을 중단할 수 없었다. 박규환(이과대 물리학과) 교수는 “자연과학 연구에서 reference search(기주 탐색)는 생명과도 같다”며 “학계에서 ScienceDirect 저널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구독 위해 재원 확보해야

경희대 도서관의 경우 최근 3년간 도서관 예산이 예산요구액 대비 평균 7% 삭감 배정됐다. 전자자원 구독료 역시 전년 대비 평균 3~5% 이상 지속해서 인상되고 있어 2021년 전자자료 1종과 인쇄저널 47종 구독을 중지했다. 또한 전자저널 중 해외 전자저널은 각국 통화로 비용을 지불해야 해 환율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경희대 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측은 “국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환율이 크게 변동될 우려가 있어 매년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외 전자저널은 구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양대 도서관도 전자자원 구독료가 도서관 자료 구입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해마다 대형 출판사의 Big Deal Model 뿐만 아니라 많은 전자저널 품목들이 인상돼 도서관 재정이 타격을 받았다. 다만 2021년은 지금까지 구독했던 전자저널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지급됐다. 한양대 도서관 연구정보팀 측은 “올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그전까지는 해마다 일부 저널 구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 OA 등으로 대처 시도

본교 도서관은 전자자원 구독료 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매년 ‘전자자료 선정위원회’를 열어 구독자원의 적정성 및 효용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해 도서관 자료 구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도모한다. 또한 국가 기관 및 관련 협의체가 주도하는 공동구매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인상을 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본

교가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사립대학 전체가 참여하는 ‘KCUE’, ‘대학라이선스’ 크게 두 가지다. 전자자원의 질적 이용 제고를 위해 학술정보레이선서비스(SICS)를 자체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자원 구독료 인상 문제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특정 대학들을 분야별 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전자자원 구독 중단에 대비해 최소한의 인쇄저널을 아카이빙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본교는 2009년 인문학 분야의 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선정됐다. 현재 강원대 생명공학 분야, 부산대 기술과학 분야, 서울대 자연과학 분야 등 총 10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전자구독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오픈액세스(OA)가 소개되고 있다. 오픈액세스는 학술논문이 출판되자마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저작권·기술권 제한 등 접근의 문제 없이 학술논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저자가 오픈액세스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기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특정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저장소)에 셀프 아카이빙하는 방식으로 정보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다만 국종건 학술정보기획부 과장은 “오픈액세스 방식의 경우 해외출판시장과 국내출판시장의 환경이 다르고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의 운영 방식에서 오는 차이가 커 아직 조율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한양대 도서관 연구정보팀 팀원 손지혜 씨는 “오픈액세스는 해외에서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한다”며 “개별적으로 대학들이 접근하기보다는 국가나 컨소시엄이 개발한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글 | 조은진 기자 zephyros@
일러스트 | 조은결 전문기자

〈미디어 루키스, 캘리포니아에서 미래를 보다〉 출간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의 현장을 탐방하다

구글·우버 등 글로벌기업 방문
14일간의 캘리포니아 여정 답아

4월 10일 본교 미디어학부가 2019년 제1회 ‘AJ 미디어 루키스 프로그램’의 여정을 담은 책 〈미디어 루키스, 캘리포니아에서 미래를 보다〉를 발간했다. ‘AJ 미디어 루키스 프로그램’은 매년 2회 교수 2명, 대학원생 2명, 학부생 10명으로 팀을 구성해 미디어 산업현장을 탐방하는 미디어학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기획 및 도서 출판을 총괄한 마동훈(미디어학부) 교수는 “탐방을 통해 보고, 배우고, 생각한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학습이 완결되는 것”이라고 집필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함께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책을 통해 경험이 공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 루키스, 캘리포니아에서 미래를 보다〉는 학부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미디어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기록한 책이다. 집필에 참여한 미디어학부생 9명은 2019년 8월 17일부터 2주간 넷플릭스, 디즈니, 구글 등 미국 캘리포니아의 우수 기업들을 탐방했다. 아울러 UCLA의 로봇 연구실 ‘로벨라’를 방문하고 UC버바인의 독특한 게임 전공과정을 알아봤다. 또한 대표적인 K-POP 이벤트인 KCON, 오프브로드웨이 뮤지컬, LA다저스 경기를 관람하는 등 다양한 문화산업 현장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탐방 동안 겪었던 각각의 경험을 에세이 형식의 글로 기록했고, 이를 마동훈 교수, 김성철(미디어학부) 교



2019년 ‘미디어 루키스’가 미국 캘리포니아로 미디어 산업 현장 탐방을 다녀왔다.

수가 책으로 엮었다.

책은 총 3부로 발간됐다. 데이터 산업과 미디어 산업의 관계를 살핀 1부 ‘데이터 혁명과 미래 미디어 플랫폼’,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팬덤이 콘텐츠 IP(Intellectual Property)의 발전에 기여하는 양상을 분석한 2부 ‘창의적 스토리텔링의 시대’, 기업들이 VR, AR 기술을 어떻게 기업 정체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지 탐구한 3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만드는 세상’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참가가 대학 생활에서 손꼽는 유의미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윤동민(미디어16) 씨는 “내 이름이 들어간 책이 서점 대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니 기분이 묘하다”며 “뜻깊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박초원(미디어18) 씨는 “미디어 업계 최전선에서 연구, 종사하시

는 분들을 만나 세계를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마동훈 교수는 “혼자 책을 쓰는 것보다 몇 배 힘든 과정이었지만, 학부생들의 경험과 생각을 책 한 권으로 만들고 나니 큰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월에 다녀온 두 번째 탐방 이야기도 웹진 형식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덕영(신문방송학과 79학번) AJ 부회장의 후원으로 탄생한 ‘AJ 미디어 루키스 프로그램’은 2019년을 시작으로 총 6회가 계획됐다. 앞서 2019년 8월과 2020년 1월에 두 차례 진행됐으며, 세 번째 프로그램은 국내 미디어 탐방으로, 올해 7월로 예정돼 있다. 마동훈 교수는 “미국 동부의 MIT 미디어랩과 뉴욕타임스의 혁신 현장을 중심으로 한 탐방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글 | 박다원 기자 wonderful@
사진 | 김소현 기자 sosoh@
사진제공 | 이해원(미디어18)

기고

한국 식품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다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에너지를 얻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식품이 필요하므로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식품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이다. 기술의 발달과 시대의 흐름은 식생활 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의 식품산업의 이슈와 식품과학의 연구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식품을 만들고 식품의 품질을 개선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가치 있는 식품과 그 원료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식품연구와 기술을 첨단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고, 과거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서양보다는 100여 년,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반세기가 늦게 1960년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고고학 발굴과 최근의 한국 고대사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역사시대 이전의 한국음식의 원류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이 책의 저자인 이철호 교수님은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 자료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에 우리의 식품고대사(食品古代史)를 정립하였다. 〈동북아시아 구석기시대의 식생활 환경〉과 〈한반도 원시도기문화의 특징과 식품사적 의의〉를 통해 한민족 음식문화의 시초로서 씨재문화와 양조곡주, 김치, 젓갈 등 발효문화의 기원을 규명하고 그 영양인류학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농업의 시작과 동북아 신석기 농경문화〉에서는 소로리법씨를 비롯한 쌀과 콩의 재배역사에 대해 재검토하였으며, 〈동북아 국가형성의 한민족 음식문화〉를 고조선 성립과 동이족에 의한 콩 가공식품기술의 기원을 중심으로



로 고찰하였다. 〈역사시대의 음식문화〉에서는 한반도 열국시대와 삼국시대의 역사를 개관하고 불교의 전래에 의한 음식문화의 변화, 특히 떡과 한과류 제조기술의 발달을 논하였다.

그동안 개별적인 음식의 역사나 발효식품의 기원을 기술한 여러 책이 있었지만, 동북아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농경문화, 국가형성의 한민족 음식문화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식품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기술한 책은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한 논란이 뜨겁지만, 이 책은 최근의 한국 고대사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실증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원시도기문화(Primitive Pottery Culture)의 식품사적 의의는 동북아 국가형성에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동북아의 엘리트 그룹으로 성장하였는가에 대한 영양인류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일만 년 전 한반도의 토기문화에서 시작된 한국인의 음식문화가 한민족의 영육의 세월 동안 어떻게 성장했으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 문명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영양인류학적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 책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손홍석 본교 교수·식품공학과